



변화의 시작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The Beginning of Change: Is that REALLY what YOU think?

일시: 2019. 10. 31. (목)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website <http://www.sdf.or.kr>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SeoulDigitalForumSBS>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DF.kr/>

목차 - Contents

- SDF 소개 - Who We Are
- SDF 2019 주제 소개 - the Theme of SDF 2019
- SDF 2019 프로그램 소개 - SDF 2019 Program
- SDF 연혁 - History in Brief
- 역대 주요 연사 - Our Past Visionaries
- 지난 포럼 주요 장면들 - Past Forum at a Glance
- 행사장 소개 - Conference Venue



SDF 소개 | Who We Are

SDF는 SBS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실시해온 대표적인 지식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디지털포럼 (SDF)과 미래한국리포트(FKR)라는 양대 비영리 포럼을 통해, 기술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한국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는 무엇인지를 앞서 고민해 왔 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과 사회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를 맞아 2018년,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더 많은 시청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두 포럼을 계승 발전시킨 새로운 SBS D FORUM (D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SDF의 시즌2로 출범한 D포럼에서는 기술의 관점에서 미래를 조망하던 기존 '서울디지털포럼'의 한계를 뛰어넘어, D포럼의 다양한 D가 의미하듯(diversity, democracy, data, dream dignity...)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합니다.



SDF2019 주제 소개 - the Theme of SDF 2019



변화의 시작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The Beginning of Change: Is that REALLY what YOU think?

다원화 시대, 갈라지는 사회를 보다

본질은 두고 물어뜯기가 앞선다. 생산적인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곳에는 논쟁과 혐오, 대치가 자리잡았다. ‘개인’과 ‘다양성’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현실을 한 겹만 들춰 보면 여전히 진영 논리나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개인은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사안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회 갈등은 언제 어디에나 있었지만 최근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이전보다 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대로 우리는 대한민국, 넓게는 지구라는 공동의 터전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스마트폰, SNS, 알고리즘... 휩쓸리고 있는 개인의 시간과 생각, 그리고 권리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모르던 개인들과 연결돼 지지를 받고 힘을 키울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한편,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의 기존 생각을 강화하는 ‘확증편향’이 가속화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SNS를 통해 ‘끼리끼리’하는 소통이 늘어났다. 언론은 본질보다 싸움에 눈을 돌리고 학교에서는 공감보다 경쟁을 먼저 배우고, 거대 플랫폼이 우리의 취향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접하고 다른 의견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타인에게 이 해될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 무엇에도 휩쓸리지 않을 고유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직접 대면하기 보다는 디바이스를 중심에 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모바일이나 컴퓨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상대의 감정과 고통에 무감각 해지고 있다. 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과거의 수직적 소통에서 느낀 거부감을 회피한 사람들은 더이상 나와 다른 누군가와 대면할 필요조차 잃어가고 있다.

새롭게 같이 살기 위하여.. 변화를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다.

SDF 2019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쉬운 현실에 ‘잠깐 멈춤’ 신호를 켜보려 한다. 현재 폭발하는 사회 갈등에는 어떤 시대의 요구와 실제적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는 마주하고자 한다. 언론, 정치, 기업, 학교가 그리고 당신과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목소리와 주장을 가지고도 싸우거나 등 돌리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실험과 사례를 통해 찾아보려 한다. 변화는 늘 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돼 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변화를 위한 그 ‘질문’을 제기할 때이다.



김태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영화 '벌새' 감독



김주호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김현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나은영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장 (사회심리학)



로널드 라엘

UC버클리 환경디자인 교수/건축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에 '시소'를 설치해 장벽 양측 주민의 연결과 소통을 시도해 화제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안은미

현대무용가 · 안무가



이브 펠먼

스페이스십 미디어 대표



이선 주커먼

미디어연구자, MIT교수, MIT미디어랩 시빅미디어센터 디렉터, 팝업광고의 창시자, 다양한 기준으로 뉴스를 보는 'GOBO'라는 톨 개발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사회학)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제이넵 투팩치

기술사회학자,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사회학과 교수, 사회개혁과 소셜미디어 · 빅데이터 · 알고리즘 전문가



제임스 기어리

하버드 니먼재단 부큐레이터 · <니먼리포트> 편집장



지상욱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카림 벤 켈리파

사진기자, 분쟁 지역 군인들의 인터뷰를 VR · AR을 이용해 'The Enemy(적 프 로젝트)'로 제작

SDF 2019 프로그램 소개 - SDF 2019 Program

변화의 시작 -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연사,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09 : 00 - 09 : 25 프롤로그: 개막식

Chapter 1. 다원화 사회, 갈등을 보다

Session 1 09 : 25 - 10 : 15

SDF2019 연구발표 I 생각의 차이와 착각을 넘어 : 대립에서 화합으로

각자의 개성과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다원화 시대'에서 사회 대립과 갈등, 입장차는 더욱 집단화된, 극단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 · 정책은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을까?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현재 깊어지는 사회 갈등의 원인과 실체를 여러 관점에서 연구·실험·분석하고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사회학)

김주호/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나은영/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장 (사회심리학)

session 2 10 : 30 - 11 : 25

용감한 의원들 - 우리의 대화를 찾아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이곳을 빼고 한국사회의 '갈등'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말'은 있지만 '대화'는 잃어버린 그곳! 여의도의 대화를 찾는 현직 국회의원 4인의 '용감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금태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지상욱/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Chapter 2. 휩쓸리지 않을 권리

- **session 3 11 : 25 - 12 : 25**

AI 시대, 휩쓸리지 않을 권리

점점 많은 기업과 사회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딥러닝을 활용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인간보다 '객관적'이라고 믿는 기술의 의사결정이 우리의 사회와 개인의 사고를 바꿔놓고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윤리적 기술의 개발, 그리고 '휩쓸리지 않는' 사용을 강조하는 세계적 기술사회학자가 SDF무대에서 질문을 던진다.

제이넵 투팩치 / 기술사회학자,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사회학과 교수, 사회개혁과
소셜미디어 · 빅데이터 · 알고리즘 전문가

Chapter 3. 변화의 시작 *하버드 니먼재단 특별세션

- **session 4 13 : 30 - 15 : 20**

커뮤니티와 소통

하버드 니먼 재단과 SDF2019의 공동기획 세션. 전례 없이 갈라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사회에서 새로운 방식 ·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를 건설적인 대화로 이끌고 있는 언론인 · 스토리텔러를 만나본다.

- **session 4-1 13 : 35 - 13 : 55**

The Enemy (적 프로젝트): 누가 적을 만들었나

18년 동안 전장을 누빈 사진기자가 보여주는 전쟁의 전혀 다른 측면. 카림 벤 켈리파는 우리를

VR을 통해 전장의 한 가운데로 데려간다. 전쟁에서 싸운 양측 군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양측 '적'들의 이야기는 의외로 다르지 않다. 그들을 적으로 만든 건 누구인가. 카림은 묻는다. "내가 반대편에 있었다면, 바로 당신일 수 있지 않을까요?"

카림 벤 켈리파 / 사진기자, 분쟁 지역 군인들의 인터뷰를 VR · AR 을 이용해
'The Enemy(적 프로젝트)'로 제작

• session 4-2 13 : 55 - 14 : 10

다양한 관점을 선택하라

강력한 알고리즘을 거쳐 매일 우리에게 추천되는 각종 콘텐츠들. 그런데 '왜 어떤 뉴스는 내 피드에 뜨고, 어떤 소식은 뜨지 않는지', 우리는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 자신이 접할 소식의 '기준'을 직접, 다양하게 정할 수는 없을까? 민주사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업적 소셜미디어를 시민친화적 소셜미디어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현실로 옮긴 사람이 있다. MIT 미디어랩의 '이선 주커먼'. 주커먼은 'GOBO'라는 툴이 열어주는 새로운 관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선 주커먼/ 미디어연구자, MIT 교수, MIT 미디어랩 시빅미디어센터 디렉터,
팝업광고의 창시자, 다양한 기준으로 뉴스를 보는 'GOBO'라는 툴 개발

• session 4-3 14 : 10 - 14 : 25

대화 저널리즘: 외면하지 않을 용기

서로 의견차가 첨예한 사람들, 서로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이 '일단 서로 편한 이야기'부터 해 본다면, 이들 사이에 다리가 놓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이어주고, 공감대를 발견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대화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스페이스십 미디어'. 신뢰를 쌓으려면 관계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믿는 이브 펄만(스페이스십 미디어 대표)이 방치돼 왔던 오랜 갈등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브 펄먼/ 스페이스십 미디어 대표

- session 4-4 14 : 25 - 14 : 40

연결, 소통, 신뢰를 향해: 갈등과 극화 시대의 공동체와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점점 더 촘촘하게 매개되는 초연결 미디어 환경에서도 사람들 간의 대화는 성숙한 소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여전히 우리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고 완결적인 정보를 얻고 다양한 관점을 교환할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미디어가 그러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갈등과 극화로 부침을 겪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session 4-5 14 : 40 - 15 : 20

하버드 니먼재단 특별세션 토크

제임스 기어리/ *모데레이터, 하버드 니먼재단 부큐레이터 · <니먼리포트> 편집장

카림 벤 켈리파/ 사진기자

이선 주커먼/ MIT 미디어랩 디렉터

이브 필먼/ 스페이스십 미디어 대표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Chapter 4. 새로운 연결

- session 5 15 : 40 - 16 : 30

각자의 스텝, 각자의 댄스

그의 춤은 다르다. 평범한 우리 모두의 움직임, 몸 안에 기록된 역사를 발견해 무대로 옮기는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남의 잣대로 재단될 수 없는 '나', 내 몸과 움직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춤'을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해온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역시 춤을 통해 이야기 한다.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면 원 스텝! 또 한 발 내디디면 원 스텝! 우리 모두는 그렇게 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휩쓸려 살아오기만 한 당신이라면, 일단 SDF에서

안은미를 만나보시라.

안은미/ 현대무용가 · 안무가

- **session 6 16 : 30 - 17 : 05**

시소, 경계를 잇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자 어느 날 국경의 장벽 사이로 핑크색 시소가 등장했는데... 자연 위에 인간이 그은 '경계', 분리와 갈등의 물리적 실체이자 상징인 '장벽'을 건축 · 디자인적인 방법으로 허물고 장벽 양쪽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건축가의 기발한 도전.

로널드 라엘/ UC 버클리 환경디자인 교수, 건축가

- **session 7 17 : 05 - 17 : 35**

바라본다는 것, 잘 바라본다는 것

영화 <별새>의 창작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나누는 것과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통과하는 과정들을 들여다본다. 창작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공동의 보편적 서사가 될 수 있었는지를 나눈다. 그리고 공감을 자아내는 공동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김보라/ 영화 '별새' 감독

- **17 : 35 - 17 : 40** 에필로그

행사장 안내 | Conference Venue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ongdaemun Design Plaza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2014년 3월 개관한 세계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입니다. 여성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 각종 전시, 패션쇼, 신제품발표회, 포럼, 컨퍼런스 등이 주로 개최됩니다.

SBS는 동대문디자인 플라자가 개관한 첫해인 2014년부터 SDF를 DDP의 알림터(Art Hall)에서 개최해왔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158-051

전화. 02.2113.4232

이메일. sdf@sbs.co.kr

홈페이지. www.sdf.or.kr

Follow us on

Twitter | twitter.com/theSDF

Facebook | facebook.com/SDF.kr

YouTube | youtube.com/SeoulDigitalForumSBS